마산포교당 정법사 110년 되짚다

4월 8일 기념 학술대회 개최…정법사 포교 고찰

근대 문헌집 발간, 봉정 눈길
유물 기증도 식전행사로 진행
학자들 "역사 조명 지속돼야"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법사가 4월 8일 만불전서 개최한 학술대회에 모인 사부대중들이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마산 정법사 창건 110주년을 맞아 정법사 역사를 고찰하는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는 4월 8일 만불전에서 창건 1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석문 스님, 연구원 도해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송정 스님, 허성무 창원특례시시장,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 관장, 제점숙 동서대 교수, 김규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수석연구원, 안미옥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사단법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주관 하에 정법사 성보문화재와 포교 활동 조명이 이뤄졌으며, 특히 정법사의 근대 자료를 묶은 문헌집이 봉정됐다.

학술대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낭독, 장학금 수여식, 유물기증식을 식전행사로, 개회사, 신도회장 인사말, 내빈소개, 축사, 장학금 및 학술세미나 후원단체 소개, 축전 및 화환 소개, 정법사 1930~1960년대 자료수집 도서발간 봉정식, 학술세미나 진행,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소임을 맡으며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는 어떤 곳인가'를 화두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다. 자료를 탐독할 때마다 환희심이 가득찼다"며 "민주항쟁 발원지인 마산에서 교육의 초석을 놓고, 민족정신을 함양해 온 정법사의 역사를 기리는 문헌집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모든 것이 불자들이 함께해줘 가능했다"고 말했다.

안미옥 신도회장(장학위원회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 어렵지만 세미나를 열고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 창건 110주년을 맞아 근대불교 초석을 놓은 정법사를 알리게 돼 자부심이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서는 △윤재근 한양대 명예교수의 '제 어머니와 관세음보살'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의 '마산포교당 정법사 대부모은중탑의 고찰' △김규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마산포에 있어서 마산포교당의 지리적 상징성' △제점숙 동서대 교수의 '마산포교당의 교육사업 현황과 역사적 의의'가 발표됐다.

제정숙 동서대 교수는 "마산포교당 교육사업 중 배달학원과 배달유치원은 마산 지역민의 근대적 교육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공간"이라며 "식민지 지배 하의 독립을 향한 저항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북 영산작법보존회장에 영산 스님 취임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스님(사진 오른쪽)으로부터 추대장을 받고 있는 영산 스님(사진 왼쪽).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를 이끌어갈 새 회장으로 익산 태봉사 영산 스님이 취임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는 4월 7일 전북교구 종무원 대법당(영산보존회관 3층)에서 보존회 신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남상준 전주대 교수 사회로 봉행된 이날 취임법회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전북교구 종회의장 법전 스님을 비롯해 영산작법보존회 회원 스님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월 열린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총회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영산 스님은 이날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으로부터 추대장을 받았다. 영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과 영산작법보존회가 일심으로 전북의 영산재를 발전시켜달라"며 "일반인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범패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으로 영산작법보존회를 이끌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진성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영산작법보존회와 전북종무원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그동안 꾸준하게 영산작법보존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스님인 만큼 임기동안 더욱 더 발전을 위해 분투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안 선사 48주기 추모재 봉행

부안 내소사 4월 7일 대웅보전에서 개최


내소사 스님들이 해안 선사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있다.

근현대 선지식인 해안 선사 48주기를 기리는 추모 다례재가 봉행됐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4월 7일 대웅보전에서 해안 대선사 48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 원명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원로 법현 스님, 범여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진용 스님, 김태진 거사, 이동배 정광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추모재는 영단삼배, 입정, 해안 대종사 육성법문, 분향, 삼배, 주지 스님 인사,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진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몹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공사다망함에도 원로 대덕 스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대중스님들의 은덕으로 다례재를 잘 치르게 됐다. 건강 유의하시고, 강건하게 후세를 지켜봐 달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해안 스님은 1901년 부안에서 태어나 1914년 내소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17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32년 계명학원을 설립했고 1969년 불교전등회 대종사로 추대됐다. 스님은 1974년 세수 74세, 법랍 57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오늘날 내소사를 있게 한 해안 스님은 출가와 재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았다.

한편, 내소사는 추모재에 앞서 부도전에서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이산 탑사, 자비의 쌀 300포 전달

봄맞이 산신재 열고 이웃에 회향


산신재 이후 불자대중들이 자비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

진안 마이산 탑사가 봄맞이 산신재를 봉행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300포(1000만원 상당)를 진안군청에 전달했다.

4월 9일 진안 마이산 탑사 광장에서 열린 산신재는 임인년 한해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나라의 안녕,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였다.

남상준 전주대 교수의 사회로 봉행된 산신재는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 집전으로 신중작법과 39위 신장 법문에 이어 천지기도, 산신재 순으로 진행됐다.

산신재에서는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불자기업인 (주)복성산업개발, 태원산업개발, 태원(회장 박금태), 전북 나누우리 봉사단(봉사단장 이재현), 탑사 전국총신도회(회장 윤복길)가 나눔기도를 진행, 진안군에서 추천한 복지센터, 홀몸어르신들에게 자비의 쌀 300포를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서 이갑룡 거사가 탑을 쌓고 산신재를 봉행한 지 137년이 되었다. 산신재 공양물을 팔아 독립군에게 보낸 것도 137년이 되었다"며 "마이산 산신재는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의 장"이라고 말했다.

전문순 복성산업개발 부회장은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박금태 회장 등의 인연으로 국내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자비의 백미가 진안군 이웃에게 잘 전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도봉축위, 봉축기원탑 점등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진성)가 봉축 기원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4월 9일 전주역 광장서 봉행된 점등식에는 봉축위 공동위원장 일원 스님(금산사 주지)과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을 비롯해 서고사 주지 화평 스님, 조계종 17교구 스님들과 태고종 전북종무원, 천태종,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을 대표 스님들이 참여했다. 또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김성규 대불청 전북지구장, 안준아 화엄불교대학총동문회장 등 신행단체장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부내륙 ·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하라"

해인사역혁신발전위, 조기착공 주민간담회 개최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해인사역 야로 유치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조삼술, 김태구)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달빛내륙철도 연계환승역인 해인사역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4월 7일 합천군 가야면 소재 가야농협유통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인사 국장단(총무국장 진각, 기획국장 학암, 사회국장 일휴)과 합천군 가야 · 야로 · 묘산 · 봉산면 지역발전위원회, 고령 · 거창군 이장단 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조기착공을 위한 대정부 활동 전개와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의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의 뜻이 모였다.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해인사역 조기착공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 조기시행에 따른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